

2026년 첫 코어 이야기: 광야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19)

은혜의 강 교회 성도 여러분 코어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1. 기쁨의 성탄과 배움의 소식

• 크리스마스 파티: 후원 아동들에게는 학용품과 옷을, 교회와 과부들에게는 옥수수가루를 선물했습니다. 코어의 아이들에게 성탄절은 유일하게 새 옷을 선물 받는 간절한 날입니다.



• 믿음초등학교 지원: 나이로비 성도님의 후원으로 새 교과서와 학용품을 나누었습니다. 새 책을 든 아이들의 미소가 저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2.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 **끊이지 않는 후원:** 작년 말 일부 후원이 중단되어 근심했으나, 한 목사님의 결단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과부의 두 렷돈:** 전갈에 물려 입원한 사역자 후세인을 위해, 없는 살림에도 헌금을 모아준 과부들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3. 씨앗이 거둔 열매와 청소년 집회

- **장학금의 기적:** 이번 학기 19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10년 전 지원했던 조엘이 간호사가 되어 다른 선교사님의 자녀를 치료했다는 소식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 성경암송 콘테스트: 22절을 암송한 1등 학생에게 스마트폰을 부상으로 주었습니다.
- 로와의 간증: 소수 유목민 렌딜레 청년 로와가 500여 명의 마사이 소년들에게 워십 댄스를 가르치며 간증하는 모습은 코어 땅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했습니다.



4. 떡과 복음의 사역 (식량 나눔)

2026년 들어 11톤 두 트럭을 날라 온 마을에 나누고 있습니다. 위의 언급한 로와는 로스쿨 가기전에 우리도 돕고 다른 시간에 마사빗 NGO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사이 지역에서 돌아오면서 저희 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사빗 근방에서 식량지원을 언제 받았냐는 조사가 있었는데 코어의 마을들에서는 식량지원을 얼굴이 하얗고 눈이 작은 사람한테 받고 있다는 대답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 NGO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며 어리둥절했는데 로와는 이 분은 우리 담임목사님이신 선교사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항상 배부르게 돕고 있지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돕는게 이 분들에게는 큰 기억이구나 그리고 이란전쟁으로 세상이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이 때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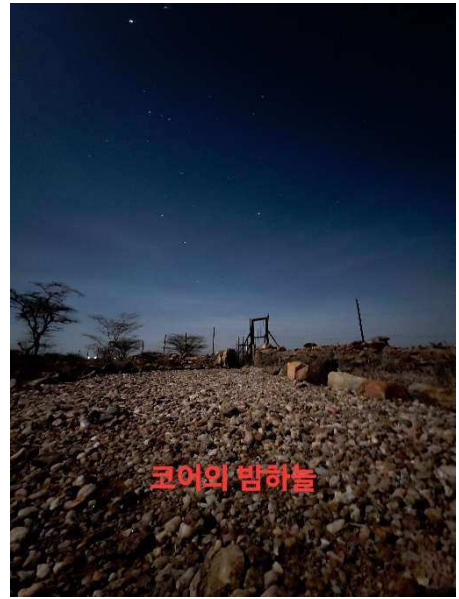
리는 한 트럭이라도 더 사서 얼른 나누자고 최인호 선교사가 결단했습니다. 감사하게 그랜트와 후세인이 계속 마을들을 돌며 식량을 나누고 말씀을 전합니다. 떡과 복음의 사역을 계속 해 나가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가족 이야기

- 성민: 본과 2학년 진학, 힘든 학업 중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 성아: 5월 대학 졸업 예정. 최우수 학생상을 받았으나 취업 문이 좁은 상황입니다. 주님의 명확한 인도를 구합니다.
- 성연: 11학년 마지막 학기, 주님 주신 비전 따라 학업을 이어가길 기도합니다.

- 선교사 부부: 공격의 화살을 대신 맞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의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코어 땅에 영적인 회개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 저희 부부와 사역자들(후세인, 그랜트 등)이 성령 충만하며, 뉘서하이 교회와 건축 중인 교회들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최인호, 한지선, 성민, 성아, 성연 올림